

## 미·영 언론, 보이그룹 '베리베리' 집중 조명

한국의 보이그룹 '베리베리'가 세계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1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베리베리는 지난 16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리미널리티 - 에피소드:드림(Liminality - EP.DREAM)' 발매 이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영미권 매체 헬로케이팝(HELLOKPOP)은 지난 28일 "이번 앨범을 통해 다시 한 번 그들의 재능을 발휘했다"며 "리스너들에게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뽐냈다"고 호평했다.

지난 29일 영국 음악 매거진 NME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성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 헬로케이팝의 '베리베리' 인터뷰 소개 기사, 사진=헬로케이팝 홈페이지 캡처

새 앨범으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베리베리의 컴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30일 미국 FOX13은 영상 인터뷰를 통해 베리베리의 이번 미니 앨범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짚어내는 것은 물론,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수록곡들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을 건넸다. 이에 베리베리는 음악을 통한 팬들과의 접점에 대해 답변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인 숄피(Scoop)에서도 베리베리의 새 앨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미국 그래미에서는 '2023년 주목해야 할 보이그룹 톱11(11 K-Pop Boy Groups To Watch In 2023)'에 베리베리를 선정했다.

## '보헤미안 랩소디' 원제는 '몽골리안 랩소디'



▲ 프레디 머큐리가 쓴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 초고. 몽골리안이라는 단어를 지운 뒤 그 위에 '보헤미안'이라고 수정한 흔적(원 안, 사진=소더비 홈페이지 캡처)

영국의 록밴드 퀸의 명곡으로 꼽히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목이 '몽골리안 랩소디'로 붙여질 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1일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퀸의 보컬리스트 고 프레디 머큐리의 가사 초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머큐리의 유산 상속자인 매리 오스틴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초고는 오는 9월 런던에서 열릴 소더비 경매에 출품됐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적은 초고는 모두 15페이지다. 머큐리는 이 중 한 페이지에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문구를 맨 위에 적어놨다. 다만 그는 '몽골리안'이라는 단어 위에 X표를 한 뒤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머큐리가 당초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곡을 구상한 뒤, '보헤미안 랩소디'로 수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초고에선 "마마, 저스트 킬 어 맨(Mama, Just killed a man)"으로 시작되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도입부가 당초에는 "마마 데어스 어 워 비건(Mama, There's a war began)"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더비 측은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문구가 적힌 이 초고가 150만 달러에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1968)에서 주연을 맡은 두 배우가 베드신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제기한 5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배우 올리비아 핫세(72)와 레오나드 워팅(73)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던 배우들을 속여 나체 촬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2022년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2018년 한 행사장에 참석한 배우 올리비아 핫세(오른쪽)와 레오나드 워팅. 사진=AFP/뉴스1

핫세와 워팅은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5·16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당시 제피렐리 감독이 촬영 전에는 피부색의 속옷을 입고 찍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촬영 당일에는

핫세와 워팅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몇 주 후 연방 법원에서 다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나체로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영화 완성본에는 두 배우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됐다.

법원은 해당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고 이 영화 제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1		9	4	2	
	2	7			4
8			3	5	
	5	7			3
	6		2	7	
3		9	4		
	9	3	6		
	1		5		9
3		8	7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인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KIM & CHOI** ACCOUNTANCY, P.C.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